

1990년대 한국 여성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性

-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와 관련하여

백은주*

차례

1. 서론
2. 1990년대 여성시에 나타난 性
 - 2.1. 과감한 성표현을 통한 금기의 위반
 - 2.2. 타락한 성관계를 통한 절망의 표현
3.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에 나타난 性
 - 3.1. 비윤리적인 성관계의 고백을 통한 금기의 위반
 - 3.2. 외설적인 성표현과 성적 일탈을 통한 금기의 위반
4. 결론

국문초록

1990년대는 성담론이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현대문학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의 영역에서도 성에 관한 담론들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필자는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성담론 연구의 집중 현상에 주목하여, 1990년대 여성시인들의 시와 조선시대 후기(18세기 후반~19세기 초)의 사설시조에 나타난 성적 표현들을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성담론과의 연계선상에서 고찰한 당대 여성시인들

* 고려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의 시와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작가의 익명성이다. 1990년대 현대시가 갖는 실명의 의미는 특기할 사항이 없으나, 사설시조의 익명성은 ‘금기’를 주제화하는 점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당시의 실정법 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성담론들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익명에 힘입은 탓이다. 그런데 사설시조의 익명성이 지닌 의미를 단순히 ‘금기’를 위반하는 상황 속에서의 긍정적 역할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다. 이것은 사설시조를 비롯한 고전시가의 향유 방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서, ‘구전’이라는 전승 방식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 부분은 사설시조가 단지 조선시대 후기에 새로이 제작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 전래되는 민요와의 상관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므로 쉽게 판단내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설시조의 한 특징인 ‘익명성’의 문제가 당대 사회의 금기를 위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성적 욕망의 담론들은 조선시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저항의 측면을 지님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부분은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개혁에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사설시조의 작자층을 민중으로 보게 될 경우, 성적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드러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모습은 이어지는 민중저항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설시조 작자층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며, 선행연구의 축적 또한 필요하다.

1990년대 성담론과 연관된 여성 시인들의 시는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항하는 측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의 금기에 대한 위반을 과감히 토로함으로써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성담론과 연관되어 논의된 여성시인들의 시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시대 여성화자의 사설시조는 당대 사회의 금기에 대한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1990년대 여성시인들의 시가 남성지배중심의 성문화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다면 사설시조의 여성화자들은 중세의 엄격한 유교적 윤리 안에서 ‘간통’이라는 죽음과 맞물린 일탈을 통하여 지배 권력에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이 있다면 1990년대 여성시에 있어서 과감한 성적 담론들이 도발적,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반면, 사설시조에 있어서 여성화자들은 범법의 상황을 익명성에 기대어 과감히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고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범법행위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을 약화 혹은 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남성 작가들이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과감한 성적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논의하는 일은 좀더 복잡해질 것이다. 남성들이 자신들의 성적 일탈행위를 한낱 우스개로 만듦으로서 사설시조의 성담론이 갖는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과감하게 금기에 대한 '위반'의 모습을 거침없이 보여줌으로써, 사설시조가 획득해낸 '저항' 이데올로기의 국면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핵심어 : 성(性), 성담론, 금기, 위반, 여성시, 사설시조, 익명성, 희극성, 권력

1. 서론

성에 관한 담론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해묵은 담론이다. 그 담론들은 시대의 성격 상 사회의 금기가 되어 배후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일부 표면에 드러나거나 하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성담론들은 변함없이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담론으로서 꾸준히 만들어지고 유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시기마다 그 담론들은 나름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처럼 성담론이 금기시되던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처럼 자유분방한 성담론들이 날개라도 달린 듯이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시대도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시기는 1990년대이다. 왜 1990년대인가?

우선 특기할만한 점은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수많은 성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이 시기에 마치 폭발하듯이 분출되어 나온 성담론들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포르노그라피와 관련된 책들이 등장했으며, 『권력과 매춘』, 『창녀론』 등 매춘과 관련된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성과 연관된 프로이트의 글들이 소개되었고 또한 푸코의 『성의 역사』가 번역되었다. 책의 제목에 섹슈얼리티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외설비시를 불러일으킨 책이 등장하여 세간을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심지어 출판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책도 있었다.¹⁾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1994년)는 성과 관련된 파격적인 묘사들로 인하여 ‘석사 학위증 소지자의 매춘부’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들으면서²⁾ 요란한 등장을 하였다. 신현림의 『세기말 블루스』(1996년)는 자신의 누드 사진을 시집의 중간에 삽입하는 등 노골적인 성을 표현했다. 시인이 자신의 시집에 누드 사진을 실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으며 그 누구도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 만큼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해서 최영미와 신현림의 시집은 당시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성담론들의 다양한 양상 속에는 우리 고전에 대한 탐구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이루어진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에 관한 연구들이다.³⁾ 199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성담론

1) 고갑희, 『1990년대 성담론에 나타난 성과 권력의 문제, 『세계의 문학』, 1997년 봄호, 334~335쪽.

2) 김상태, 『1990년대 한국사회 섹스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 새물결, 1996.

3)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시대 후기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를

에 관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사설시조가 갖는 성적 혹은 애욕적인 성격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것은 일부 사설시조에서 보이는 노골적인 성표현과 관련된 외설적인 부분들이 단순한 성에 관한 표현이 아닌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조선시대 후기 즉,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사설시조들에 나타난 자극적인 성의 표현들은 당대 사회에 대한 저항의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사설시조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집중적인 연구 동향은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대 사회적인 차원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타진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즉 사설시조가 갖는 성과 관련된 외설적인 표현들이 당시 조선사회의 금기를 위반

말한다. 이 시기 사설시조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박애경, 『사설시조의 여성화자와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6.10.

신경숙, 『초기 사설시조의 성인식과 시정적 삶의 수용』, 『한국문학논총』 제16집, 한국문학회, 1995.12.5.

김문기, 『조선 후기 여성풍속 시가에 나타난 삶의 형상과 작가의식』,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002.2.18.

김용찬, 『시조에 구현된 여성적 목소리의 표출 양상』,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6.29.

이형대, 『사설시조와 성적 욕망의 지층들』, 『민족문학사연구』 17,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12.30.

김홍규, 『사설시조의 시적 시선 유형과 그 변모』,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_____, 『사설시조의 애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2002년 전국학술대회, ‘한국시가연구의 쟁점과 전망’, 2002.10.26.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18세기에서 20세기초 한국시가의사』, 소명, 1996.8.31.

고미숙, 『18, 19세기 시가사에 있어서 리얼리즘적 발전의 한 경로-사설시조를 중심으로』, 앞의 책.

한다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당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국면은 더 나아가 사회에 개한 개혁에의 의지와도 맞닿을 수 있는 혁신적인 차원을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이렇듯 다양한 양상으로 성담론들이 증폭되어 나타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가능한 이유들을 짐작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우선 1980년대 말에 붕괴된 거대 담론 이후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이론가들의 관심이 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 그 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또한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여성해방운동의 누적되어온 영향력도 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1990년대 들어서면서 프로이트 이론의 대중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한 예로 《문화동네》 97년 봄호 특집에서 한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젊은 심리학자 최창호의 프로이트 읽기>라는 제목 아래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프로이트의 영화를 본다면』, 『만화로 보는 프로이트』, 『프로이트를 만든 여자들』 등의 글이 실렸는데 제목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프로이트 이론을 접근하기 쉬운 대중적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 흔적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性)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한 푸코의 『성의 역사』가 번역되어 소개됨으로써 1990년대의 성담론이 더욱 활발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性)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프로이트에게 성(性)이란 종(種)의 차원과 개체의 차원에 있어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의 차원에서는 전진이며 생이면서, 개체에 있어서는 퇴보이며 죽음의 의미를 갖는다. 종의 운명에서 성은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이며 생명의 창조와 생명의 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개체의 운명에서 성이란 남자와 여자의 통합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양자가 양자의

폐쇄를 통해 제 삼자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퇴보이며, 그 희열은 깊은 잠이 상징하듯 죽음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⁴⁾ 그러므로 프로이트에게 성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는 모순적 특질을 갖는 개념이 된다. 그 결과 성(性)은 생명과 죽음을 인식하게 하는 특별한 매개체가 되며,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일과 연관된다. 인간의 성별은 실존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⁵⁾

푸코는 성(性)을 권력과 연관시켜 논의함으로써 지배 세력이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던 성의 역사를 밝혀내었다. 푸코에 있어 섹슈얼리티의 발명은 근대적 사회제도가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뚜렷한 과정 중의 일부이다. 근대 국가와 근대적 조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인구를 면밀하게 통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푸코가 말했듯이, ‘섹슈얼리티(sexuality)’는 19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다. 섹슈얼리티라는 낱말은 1800년대에 생물학과 동물학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존재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즉 옥스퍼드 사전에서 ‘성적인 혹은 성을 갖는 것의 성질’이라고 풀이한 것으로서의 의미로 널리 사용된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이러한 의미는 왜 여성이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질병에 취약한가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의해 설명하려고 하는 데서 등장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 행위를 감시하에 두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었다.⁶⁾

푸코는 권력을 쾌락을 생산하는 도구로 봄으로써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권력관계의 전이지점이라고 규정하였다. ‘섹슈얼리티(sexuality)’는 권력과 융합하여 그것이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통해 사회통제의 핵심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⁷⁾ 이러한 푸코의 이론은 역으로 당대 사회의

4) R. 베커, F. 엘리스톤, 이일환 역, 『철학과 성』, 홍성사, 1982, 138쪽.

5) 전미정, 『한국 현대사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15쪽.

6) 안토니 기든스, 『푸코와 섹슈얼리티』, 황정미 역, 『미셀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1995, 45쪽.

금기에 대한 성적 위반의 코드를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근대에 이르러 여성해방운동, 게이/레즈비언 운동, 다른 급진 성 운동 등 성 관련 사회운동이 출현함으로 인해 성에 대한 전통적 인습이 의문 시되고 성생활을 틀지우는 복잡한 권력과 지배 형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이라는 개념은 단지 생물학적인 차원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며, 여타 사회 규범이나 제도 와 맺는 관계 속에 작용하는 매우 총체적이면서 포괄적인 함의를 갖는다.⁸⁾

본고에서는 1990년대 한국 현대시 중에서 성에 관한 묘사 혹은 성적 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시적 표현들을 통해 1990년대에 활발히 논의 된 성담론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여성시인들 인 최영미, 신현립, 이연주, 김언희의 작품들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서 여성시인들의 시에 한정하여 살핀 이유는 성에 관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금기시되어 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세 시대 이래 봉건적인 전통 속에서 굳어진 남성 주도의 성 문화 속 에서 여성시인들의 성에 대한 노골적인 시적 표현들이란 도발적으로 보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측면을 더욱 첨예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에 주된 경향의 하나로 나타났던 성

7) 안토니 기든스, 위의 글, 40쪽.

8) 고갑희, 『1990년대 성담론에 나타난 성과 권력의 문제, 『세계의 문학』, 1997년 봄 호, 336~337쪽.

성이란 영어로는 섹스(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젠더(gender) 등으로 표현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르게 쓰이며 각각은 서로 다른 논의의 장을 열게 된다. 섹스가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한다면 젠더는 사회 문화적인 성차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섹슈얼리티는 프로이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에 관한 외설적인 표현들이 여성화자의 사설시조에 중점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남성 주도의 지배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여성에게 금기시되고 있었던 성에 관한 욕망의 표현과 그에 따른 노골적인 묘사들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여 봄으로써 흥미로운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덧붙인다면 1990년대의 성에 대한 지나치면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담론들의 풍미 현상과 맞물려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조선시대의 사설시조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들 사이에 어떤 내적 연관성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에 착안하여 여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성 표현이 당대 사회의 금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슷한 두 양상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필자가 1990년대의 많은 여성시인들 중에서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1990년대에 논의된 성담론 혹은 그와 관련된 비평적 논의 속에서 자주 언급되었거나 시적 표현의 과격성으로 인해 논의 선상에 놓였던 시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덧붙인다면 최영미, 신현림의 경우, 1990년 초반 및 중반에 걸쳐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얻은 시인들이기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를 주도했던 의식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에 관한 담론을 주제로 하여 시를 쓴 90년대 시인들은 이들 외에도 많다. 그러나 일부 시인들의 경우는 노골적인 성 표현들이 성의 유희나 자극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진정성을 갖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들을 선별한 이유는 '시적 진정성'의 측면에 이들의 시가 기대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1990년대 여성시에 나타난 性

2.1. 과감한 성표현을 통한 금기의 위반

최영미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서 여성 화자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했다’, ‘마지막 섹스’ 그리고 ‘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시키는 등 기존 시문법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있다. 이러한 과감성은 비판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 그 예가 ‘매춘부의 언어’라는 극단적 표현이다. 그러한 비난의 평가가 남성이라는 점과 다음의 진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매춘부’라는 표현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발상임을 알 수 있다.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섹스와 관련된 시들이 많다. 여류시인이 여성적인 언어로 섹스를 말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남성의 흥미를 끈다. 어떤 장르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여성이 섹스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여성이 섹스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금기를 범한다는 것은 남성의 의식 속에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또 하나의 폭압적 현실이다. 그것은 여성에게 자연적인 공격성을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서 성적 표현의 자유를 교묘하게 뺏어간 것이다. 여성이 단지 섹스를 말하기만 해도 남성들은 오른 쪽에서 그녀를 음탕하다고 비난하는 한편 왼쪽에서 그것을 성적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최영미의 시가 남성들에게 흥미를 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⁹⁾

김상태의 ‘매춘부’ 운운의 비판이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의 발상이건, 혹은 지나친 폄하이건 간에 그의 글에서, 최영미의 시가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들면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데 대한 한 단서

9) 김상태, 『1990년대 한국사회 sex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 새물결, 1996, 297쪽.

를 찾을 수 있다. 최영미의 시가 하나의 금기 즉 여성의 입으로 섹스를 언급함에 대한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점이다.

가부장제 사회가 바라는 긍정적인 여성은 순결한 여성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성관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더럽혀진 여성 혹은 음탕한 여성이라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영미의 시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성 금기를 위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화자가 등장한다.¹⁰⁾

어젯밤/꿈 속에서/그대와 그것을 했다//그 모습 그리며/실실 웃다/오늘
아침 밥상머리/돌을 씹었다//그대에게 가는 마음 한끝 콧/깨물며 태어난/
눈물 한방울.

-「꿈 속의 꿈」 전문¹¹⁾

그런 사랑 여러 번했네/찬란한 비늘, 꺾겹이 구름 걷히자/우수수 쏟아지
던 아침햇살/그 투명함에 놀라 꺾질째 오그라들던 너와 나/누가 먼저 없이,
주섬주섬 온몸에/차가운 비늘을 꽃았지/살아서 팔딱이던 말들/살아서 고프
던 몸짓/모두 잃고 나는 씹었네/입안 가득 고여오는/마지막 섹스의 추억

-「마지막 섹스의 추억」 일부¹²⁾

여성화자가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과감함은 그러나 꿈속의 일이다. 현실은 ‘그대에게 가는 마음 한끝 콧/깨물어야 하는 부정적인 세계다. 금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뼈아픈 인식이 ‘눈물 한방울’인 셈이다. 「마지막 섹스의 추억」에서는 온몸에 ‘차가운 비늘’을

10) 정순진, 『외설과 에로티시즘의 경계』,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 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88쪽.

11)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비, 1994.

12) 최영미, 위의 책.

꽃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 번 한 그와의 사랑은 온몸에 차가운 비늘을 쫓는 사랑이다. 그 차가운 비늘은 살아서 팔딱이던 말들, 살아서 고프던 몸짓 모두 잃게 만드는 황폐한 사랑인 셈이다. 금기로서의 성을 위반했을 때, 다가오는 사랑은 따스함 넘치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몸에 차가운 비늘이 쫓히고 생기를 잃게 만드는 독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금기의 위반에 따른 일종의 형벌인 것이다.

금기를 위반했을 때 수반되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꺼림 혹은 두려움은 컴퓨터와의 ‘씹’을 꿈꾸는 기이한 상상력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씹’이라는 외설스러운 시어가 환기하는 분위기는 매우 도발적이다. 성 관계를 꿈꾸는 대상이 컴퓨터라는 무인격의 존재이므로 금기에 대한 위반은 아닐지라도 여성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는 강한 도발성을 넘어서 공격적이기조차 하다. 혹자는 이러한 공격성에 대하여 ‘매춘부의 공격성’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으나¹³⁾ 그런 비난이 나올 만큼 시어가 상기하는 분위기는 파격적이다.

어쨌든 그는 매우 인간적이다/필요할 때 늘 곁에서 깜박거리는/친구보다도 낫다/에인보다도 낫다/말은 없어도 알아서 챙겨주는/그 앞에서 한없이 착해지고픈/이게 사랑이라면//

아아 컴-퓨-터와 씹할 수만 있다면! -『Personal Computer』 일부¹⁴⁾

‘씹’이라는 언어는 남자들조차 입에 올리기가 꺼려하는 외설스런 언어일 것이다.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자는 매춘부밖에 없다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를 사는 남성들의 사고방식이었으므로 최영미의 언어를 ‘석사 학위증을 가진 매춘부의 언어’라고 한 말은 일견 설득력을 가

13) 김상태, 앞의 책.

14) 최영미, 앞의 책.

질 수도 있다.

「가을에는」이라는 시에서는 ‘사랑이 아니어도’ 그와 관계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 나온다. 여성이 자신의 성욕을 이렇듯 공공연히 드러내는 데서 일부 여성 독자들은 막혔던 한 부분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성 독자들은 사랑이 아니어도 관계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한 여성 시인의 말에서 일종의 성적 도발을 읽는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만 허락하고 싶다’라는 말은 매우 자극적으로 읽힌다.¹⁵⁾

신현림은 시집 『세기말 블루스』에서 과감한 성담론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한 시에는 자신의 몸을 찍은 누드 사진까지 덧붙여 놓았다. 신현림은 ‘왜 옷을 벗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여기 성적 노이로제가 심한 이 땅의 속좁은 자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성과 누드를 죄악시하는 비뚤어진 세계관에서 탈출해야 한다. 옷을 벗든 말든,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신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사회통념이나 자신을 포장하는 모든 것을 벗고 정신의 해방과 함께 인간의 거짓 없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과 멀리 떨어진 방법으로 나는 내 사진에 힘과 생명을 주려고 한다.

15) 내가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닌데/미칠 듯 그리워질 때가 있다/바람의 손으로 가지런히 풀어놓은, 뭉게구름도 아니다/양떼구름도 새털구름도 아니다/아무 모양도 만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찢어지는 구름을 보노라면/내가 그를 그리워한 것도 아닌데/그가 내 속에 들어온다/뭉게뭉게 피어나 양떼처럼 모여/새털처럼 가지런히 접히진 않더라도/유리창에 우연히 편집된 가을 하늘처럼/한 남자의 전부가 가슴에 뭉클 박힐 때가 있다/무작정 눈물이 날 때가 있다/가을에는, 오늘처럼 곱고 투명한 가을에는/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문턱을 넘어와/영금영금, 그가 내 곁에 앉는다/그럴 때면 그만 허락하고 싶다/사랑이 아니라도, 그 곁에 키를 낮춰 놓고 싶다-「가을에는」 전문(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런 나의 생각도 무시하고 작품을 보이는 그대로 느껴보시라'

(한국일보, 1997년 2월 10일자 16면)¹⁶⁾

다음의 시에서 신현림은 사회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 그것도 '이글이글한 정사를 치러볼 것'이라고 공표한다.

올 겨울엔 나도/빨랫줄에 간신히 매달린 흰 치마 같은/금욕의 치절함을
해제하고/이글이글한 정사를 치러볼 것이다//어떻게—슬픔의 체위를 바꾸
면서/어디서—헤어지지 않을 곳에서/누구랑—헤어지지 않을 사내랑/왜—
해설해설 웃는 아기를 가질까 해서/뭔가 꼭 잡고만 싶어서

-「립스틱과 메니큐어」 일부¹⁷⁾

그러나 이 시에서 공표되는 성욕은 임신과 결부된 성이다. 그리고 '헤어지지 않을 사내랑'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능한 한 여러 대상과 나누는 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쾌락을 위한 성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을 꿈꾸고 있다.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박한 가정애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사'라는 말이다. '정사'라는 표현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도 '이글이글한 정사'라고 표현해 놓아서 뭔가 금지된 것을 저지르고 있는데서 오는 증폭된 쾌감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남성 화자의 입을 빌어 남자의 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음 시의 퇴폐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위의 시는 건강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송명희, 『우리 시대의 성담론』,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 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12~13쪽. 재인용.

17) 신현림, 『세기말 블루스』, 창비, 1996

너는 섹스한다 고로 존재한다 놀리지 말게/기타를 안 듯 스무 명의 여자를 안았지만/그저 무엇을 찾아다닌 듯하네/여자는 세숫비누와 같네/향기 짙고 부드럽고 나를 씻어주고/다 써버리면 향기는 멀어지고/나라는 남자는/한 여자만 깊이 사랑할 수 없나보네//애인이라는 마을에 잠시 묵고 떠나는/여행객처럼 흘러다녔지/유화물감이 튜브에서 굳어지듯 몸의 긴요한 것이/딱딱해질까 두려워 헤맨 듯해/여자라는 따뜻한 진흙에 따분함을 파묻고/무언가 꼭 붙들고 싶었는지 모르네//연기처럼 흩어지며 늙는 나 자신을 말아야

-「시민 K씨」 전문¹⁸⁾

위의 시는 남성들이 주도해 온 기존의 성문화에 대한 비판이다. 여자를 ‘세숫비누’ 또는 따분함을 묻는 ‘따뜻한 진흙’ 정도로 폄하해 버리는 남성주도의 성문화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은 다음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 시바알 샐러리맨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구//내 고통의 무쏘도 쉬어야겠다구 여자로서 당당히 홀로 서기엔 참 더러운 땅이라구 이혼녀와 노처녀는 더 스트레스 받는 땅 직장 승진도 대우도 버거운 땅/어떻게 연애나 하려는 놈들 손만 버들가지처럼 건들거리지 그것도 한창때의 애가지//같이 살 놈 아니면 연애는 소모전이라구 남자는 유곽에 가서 몸이라도 풀 수 있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피로감이나 음악을 그물침대로 삼고 누워 젓가슴이나 쓸어내리는 설움이나 과식이나 수다로 풀며 소나무처럼 까칠해지는 얼굴이나/좌우지간 여자직장을 사표내자구 시발//이보게 여성동지, 고통과 고통을 왕복하는 데 여자 남자가 어딴/남성동무도 밖에선 눈치 보고 갈대처럼 굽신거리다가 집에선 클랙스 빵빵 누르듯 호통이나 치니다 불쌍한 동물이지 아, 불쌍한 씨발

-「너희는 시발을 아느냐」 전문¹⁹⁾

18) 신현림, 앞의 책.

위 시에서 시인은 이 땅에서 여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첫 행은 피로에 지친 샬러리맨을 내세운 피로회복제 광고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 행은 된소리로 나는 욕설을 예사소리로 길게 늘어 발음함으로써 음가를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심한 욕설이다. 여자가 성과 관련된 욕을 한다는 것은 기존문화의 통념에서 보았을 때 충격적인 일이다. 또한 길 아닌 길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는 무쏘라는 자동차로조차 쉬어가야겠다고 말함으로써 이 땅에서 여자가 걸어가는 길의 험난함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유곽은 단순한 유곽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허용된 모든 성일탈을 포괄한다. 이와 달리 여성은 이를 악물고 참거나, 혼자 누워 젓가슴이나 끌어 내리거나, 음식을 먹어대거나, 수다를 떨면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는 여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점의 하나가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임을 토로한다.²⁰⁾

어디로 가는 거야/탈출하려는 거야/독신자의 거리 뉴욕으로 낸 골딘 사진 속으로//왜 그녀 사진은 가슴에 와닿고 놀라운가/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왜 처절한 아우트로 사진에서 감동하는가/자신의 삶을 거짓없이 찍었으니까/게이, 레즈비언, 마약상습범, 걸인들/불안한 그들을 나는 이해할 것 같다/환풍기 없는 삶에 스스로 폭풍이 된 심정을/망가진 날개로 날려고 몸부림치는 새의 심정을/영화 『도어즈』에서 그랬던가/-모든 위대한 것은 가식을 벗어버림으로써 진정한 인간으로 표현된다-고//그래, 이해한다/가면을 벗은 자들/조용히 광적으로 사는 자들/더이상 무너질 것 없는 자들/이해한다 저승 가까이/해방에 다가서는 손길을/그래서 생생히 살려 심정을/그러나 그러나……

-「성적 종속물에 관한 발라드」 전문²¹⁾

19) 신현림, 앞의 책.

20) 정순진, 앞의 책, 91~92쪽.

위의 시에서 신현림은 남성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성적 종속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탈출하기를 소망한다. ‘독신자의 거리 뉴욕’ 혹은 사진 작가 ‘낸 골딘’의 사진 속으로 탈출을 꿈꾼다. ‘게이, 레즈비언, 마약상습범, 절인들’은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정한 금기를 범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현림이 이러한 자들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을 그들과 같은 일탈자 혹은 일탈을 꿈꾸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금기야 신현림은 하나의 금기에 당당히 도전한다. ‘조선반도 여자’로서 미혼모가 되어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혼모가 되고 싶었다’라고 스스로없이 말하는 것이다.

우선은 내가 위안받고 싶어/아이를 도구로 삼는 게 아냐/우리 나이는 미혼모도 아니야/왜 아이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지/문제여성 취급하는 일도 문제 있어/다들 보려는 것만 볼 뿐/담뱃불로 지저뚱 남 얘기를 많이 해/조선반도 여자로서 견딜 자신은 없지만/아이 키울 돈도 없지만/딸을 낳아도 장군처럼 씩씩하게 예쁘게 키울 거야//네 욕망에 동의해/혼자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은 위험해/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야 해//불안한 강가에 완강히 에워싼 욕망의 풍경이 슬프다/금일봉이라도 쥐서 내쫓고 싶은 욕망이//
-「우린 한때 미혼모가 되고 싶었다」 일부²²⁾

여성 혼자 몸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정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싶다는 발상은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불온한 일이다. 그런데 시인은 그 불온을 사실 저지르고 싶은 것이다. 혼자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은 위험하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금일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위험해서 생각만으로 끝나야만 하는 일이지만 ‘금일봉이

21) 신현림, 앞의 책.

22) 신현림, 앞의 책.

라도 쥐서 내쫓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만으로도 기특한 것이어서 금일 봉이라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야 해'하며 뒤로 발을 빼지만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 가부장제 사회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갖가지 금기를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²³⁾

최영미나 신현림에게 있어 성과 누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란 문화적 의미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문화의 문화적 성적 억압에 대하여 도전과 야유를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과 야유를 시적 금기에 대한 과감한 위반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학적 소재로 성담론을 다룸으로써 더 이상 성이 남성의 전유물일 수 없다는 것, 즉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당당하게 선언한 셈이다.

2.2. 타락한 성관계를 통한 절망의 표현

이연주는 특이한 약력을 지닌 시인이다. 그녀는 1991년 등단하고 1992년 작고함으로써 90년대의 시인으로만 한정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연주의 시세계에는 죽음의 색채가 짙게 드리워 있다. 시인의 시선은 어둡고 험악하고 더러운 도시의 삶에 집중되어 있고, 첫 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에 수록된 매음녀 시리즈(『매음녀 1』~『매음녀 7』)의 시편에는 '시공창', '쓰레기 하치장', '선술집', '지하도' 등 도시 뒷편에 자리한 후미진 공간들이 등장한다. 그 공간 속에는 '똥가래'를 뺏으며, '고름'을 흘리며, '문드러진 어깨뼈'와 '부릅뜬 황달기'의 눈을 한 매음녀의 삶이 있다. 이연주의 시에 오면 남녀의 성관계에는 사랑도 없으며, 여성의 성욕도 없다. 돈에 의해 거래되는 도시 뒷골목의 추악함만이 존

23) 정순진, 앞의 책, 94쪽.

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병들어가는 여인의 삶이 등장할 뿐이다. 그 여인은 ‘정신병자가 되어 감금되는 일이 구원’이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녀의 허벅지 밑으로 별건 눈물이 고인다./한번의 잠자리 끝에/이렇게 살 바엔, 너는 왜 사느냐고 물었던/사내도 있었다./이렇게 살바엔—/왜 살아야 하는지 그녀도 모fms다./쥐새끼들이 천장을 갇아댄다./바퀴벌레와 음벌레들이 옷가지들 속에서/자유롭게 죽어가거나 알을 간다./흐트러진 이부자리를 들추고 그녀는 매일 아침/자신의 시신을 내다버린다, 무서울 것이 없어져버린 세상/철근 뒤에 숨어사는 날짐승이/그 시신을 먹는다./정신병자가 되어 감금되는 일이 구원이라면/시궁창을 저벅거리는 다 떨어진 누더기의 삶은……/아오, 모질은 바람.

-『매음녀1』 일부²⁴⁾

이연주의 시에는 위의 시에서처럼 왜 사느냐는 것에 대한 물음들이 많다. 이렇듯 비참하고 힘든데, 왜 살고 있느냐는 식의 물음들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삶, 그 ‘모질은 바람’같은 삶 속에서 성과 결부되어 짓밟히고 있는 여인들의 육체가 있다.

소금에 절었고 간장에 절었다/숯타임 오천원,/오늘밤에도 가랑이를 열댓번 벌렸다/입에 발린 xx, xxx/죽어 날브러진 영자년 푸르딩당한 옆구리에도 발길질이다/그렇다, 구제불능이다/죽여도 목숨값 없는 화냥년이다/멀쩡 몸뚱어리로 뭐 할 게 없어서/그것이냐고?/어이쿠, 이 아저씨 정말 죽여주시네

-『매음녀3』 전문²⁵⁾

24) 이연주,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 세계사, 1991

25) 이연주, 위의 책.

몸 피는 여인들의 어두운 삶이 가려진 것 없이 드러나는 일은 기존의 시세계에서는 드문 현상이었다. 여과되지 않은 언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추한 여인들의 모습은 연민을 느끼게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외면해버리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다음의 시에 등장하는 매음녀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녀들은 ‘고름 섞인 누런 채액’을 흘리며 병원 진찰대에 자주 누우며, 그렇지 않을 때면 ‘문드러진 어깨뼈’를 드러내고 황달기의 눈을 부릅뜨고 서서 살기위하여 호객행위를 한다. 그녀들은 ‘지독한 삶의 냄새’로부터 ‘쉬고 싶어’ 한다. 그 ‘쉬고 싶음’ 속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달아오른 한 대의 석유 난로를 지나/진찰대 옆에서 익숙하게 아랫도리를 벗는다./양다리가 벌려지고/고름 섞인 누런 채액이 면봉이 들들 감겨/유리관 속에 담아진다./팡팡 얼어붙은 창 바깥에서/흠뻑 눈을 뒤집어쓴 나무 잔가지들이 키들키들/그녀를 웃는다/(중략)/몇 번의 마른기침 뒤 뺨어내는/뒀가래에 추억들이 엉겨 붙는다./지독한 삶의 냄새로부터/쉬고 싶다./

-「매음녀4」 일부²⁶⁾

거미집에 그녀/밤이면 무덤을 나와/희미한 가등 옆에/문드러진 어깨뼈 드러내 서서//표백된 도시/불빛 내려다본다/부릅뜬 활달기의/그녀, 눈//거미집 밑창 아래 쓰레기 하치장/그 하치장 담벼락 기둥 옆에/누군가의 심장, 누군가의/버려져 썩어가는 양동, 쉬었다 가세요, 네?

-「매음녀5」 일부²⁷⁾

이렇듯 삶이 비참하다면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연주는 그러한 물음에 대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행위으로써 답을

26) 이연주, 앞의 책.

27) 이연주, 앞의 책.

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삶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결정에 섰듯 동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 살아있는 자들의 위치이다. 김언희의 시 속에도 이연주의 시에 못지않은 절망적인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그녀들에게는 삶의 고통을 조롱해버리는 도발적인 ‘유희’가 있다.

나를 입고/나를 신고/나를 걸타고/한 입 또 한 입 나를/베어무는 당신/
피 빨고 노래 빨고/질경질경 씹어 재떨이에/내뱉는 당신/온몸에 남은 푸른
이빨자국들을/사랑할게요 시퍼렇게/사랑할게요 가지 말아요/버리지 말아
요 나의/기둥서방 당신/붙잡을 바짓가랭이도 없는 당신/입에서 향문으로/
당신의 음경에/꼬치 꿰인 채/뜨거운 전기오븐 속을/빙글빙글빙글/영겁회
귀/돌고 돌게요 간도/쓸게도 없이

-「늬은 창녀의 노래 · 2」 전문²⁸⁾

김언희의 시에 등장하는 ‘늬은 창녀’에게는 이연주의 ‘매음녀’에게 질게 드리워져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없다. 김언희의 시는 가볍다. 그 가벼움은 주체가 지닌 내부의 가벼움이 아니다. 절망적인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서 죽음만이 구원이라는 듯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연주의 여인들과는 달리 김언희의 시에 나오는 여인들은 삶의 비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다. 아니, 오히려 삶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빨아 내고 재떨이에 버려버리는 남성들의 만행에 대하여 ‘사랑할게요’라고 감히 말하고 있다. 그것은 버려지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버리지만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붙잡을 바짓가랭이’도 없는 무능한 남성임을 잊지 않고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그 남성을 ‘간도 쓸게도 없이’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에게 고통만을 주고 있는 남성 주도의 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하여 조롱

28) 김언희, 『트렁크』, 세계사, 1995.

이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다음의 시에 보면 그러한 ‘조롱’의 모습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다.

박혀 있는 게/못의 힘인 줄 아는/바보/먹통//못 느끼겠니……?//못의/영
덩이를 두드려가며/깊이 못과/교접하는/상처의/질//의/탄력?

-「못에게」 전문²⁹⁾

‘못’으로 상징되는 남성의 성에 대하여 여성의 성이 과감히 도전한다. ‘박혀있는 게 못의 힘’이 아니라 ‘질의 탄력’이라고 일깨우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대하는 사물들에 성적 이미지를 중첩하여 남성 주도의 사고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가벼운 재담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아 넘길 수만은 없는 진지함과 예리함이 숨어 있다. 김언희의 시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들은 그 비참함 속에 혼자 가라앉아 있지 않는다. 그녀들의 삶 속에는 그녀들을 그렇게 만든 남성의 삶 또한 포개어져 있다. 타락한 그녀들은 한 발 물러서서 오히려 남성을 위협한다. 그녀들에게는 절망으로 나가떨어져서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 절망의 상황을 마치 쾌락처럼, 유희처럼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다. 그런데 그 여유에는 날카로운 공격의 바늘이 돌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훨씬 벗었어/배때기겨정 열어젖혀 놓았어/닭전 골목 평상 위/관능의 닭
살 오소소 돌아오른/갓 마흔 나의 누드/헤벌어진 배때기 속에/마늘 대신
쭈 대신 당신/당신을 집어넣고/통째 우겨넣고/끓는 기름의 고요/속으로 투
신하고 싶어/자그르르/튀겨지고 싶어, 실재없이/가로졌던 대가틸랑/토막
쳐버렸어, 이리 와/당신, 이리 와/배때기째 벌러지는, 이/허기 속으로

-「늪은 창녀의 노래 · 1」³⁰⁾

29) 김언희, 앞의 책.

30) 김언희, 앞의 책.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도발적으로 공격자세를 취해보는 것이 김언희 시의 특징이다. 위의 시에는 그러한 도발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의 속에 남성을 넣고 통째 튀겨지고 싶다고 말하는 여인의 관능은 섬뜩하다. 자신의 대가리조차 토막쳐버리고 동물적 본능의 허기 속으로 유희하는 여인의 육체는 무섭다. 느긋거리는 여인의 공격적 탐욕 앞에서 남성 주도의 성 이데올로기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연주와 김언희는 같은 대상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그 드러내는 방식이 매우 대조적이다. 절망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삶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음이다.

3.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에 나타난 性

1990년대 여성시인들의 시와 사설시조를 한 자리에 놓고 볼 수 있었던 내적 근거는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외설성 속에 자리한 긍정적인 의미의 획득이라는 부분에 있다. 대사회적인 차원에 있어서, 외설적인 표현들이 오히려 사회의 건강한 면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외설이 단순히 외설에 그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차원이 열린다. 금기를 위반하는 힘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자리한 원초적 욕망에 대한 통제를 이용함으로써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배 권력에 대항한다는 측면을 지닌다. 그럼으로써 금기를 위반하는 힘은 체제에 저항하는 힘의 잠재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확장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논의의 처음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1990년대의 시인들이 남성 주도의 성문화에 과감

한 도발을 감행한 여성들이었음과 연계하여, 노골적인 성의 표현을 통하여 애욕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설시조의 여성화자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설시조에 관한 논의들에 있어서 性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설시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性 혹은 愛慾의 문제는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성담론들의 분위기 속에서 사설시조가 갖는 성적 혹은 애욕적인 성격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한 활발히 일어났음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된 사설시조에 관한 논의들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³¹⁾ 주된 논의들은 사설시조의 담당 계층에 관한 것들로서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 하였다. 담당층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은 담당층을 누구로 잡는지에 따라 해석의 층위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31) 신경숙은 1990년대 사설시조 논의를 크게 세 가닥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90년대 이전까지 논의된 사설시조 담당층 거론에 대한 전면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사설시조의 중심 향유층이 중간계층이라는 논의인데, 고미숙과 강명관이 대표적이다. 둘째, 사설시조의 중심 담당층을 사대부로 보는 김학성의 논의로 앞의 논의들에 대하여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앞의 논의들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셋째, 초기 사설시조의 관심과 이후 전개된 사설시조의 지적 관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사설시조 기원을 하층의 가창 양식으로 구할 필요'를 언급한 김홍규의 논의가 있다.

위의 세 가닥 논점은 다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와 둘째 논의를 상반된 담당층을 도출하였지만,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설시조의 연행현장의 유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논의는 작품의 일반적 양상을 역사적으로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에 대한 해석적 측면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즉 초기 사설시조의 세태적, 戲畫詩的 양상이 19세기에 와서 현저히 감소하고 평시조의 주류적 미의식에 더 근접해 갔음이 확인되었다. 신경숙은 이상의 연구사를 통하여, 초기 사설시조와 후기 사설시조가 내용적 자질의 무게에 있어 이같이 차이가 있다면 각 시대에 따른 사설시조의 의미 파악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신경숙, 『초기 사설시조의 성 인식와 시정적 삶의 수용』, 『한국문학논총』 제16집, 한국문학회, 1995.12.6.)

사설시조의 주 담당층을 사대부로 본 김학성과, 중간계층으로 본 고미숙·강명관은 애욕과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비윤리적, 비일상적 남녀관계를 다룬 사설시조들을 난잡하거나, 누추·비천하거나 퇴폐적 혹은 퇴영적으로 보았다. 김홍규는 이상의 논자들이 부정적으로 분류해 놓은 사설시조 작품들이 정당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어떤 작품이 애욕과 성에 관한 사태를 다루었다고 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할 문학적 질문은 ‘그 소재가 윤리 규범에 합당한가’가 아니라 ‘그 속에 삶과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이 담겨 있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³²⁾

중세적 이념이 일상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에 성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작품군이 공적 담론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고 그런 만큼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담한 성적 발언을 주도하는 화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설시조에는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성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성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야유를 퍼붓는가 하면, 셋서방, 중, 떠돌이, 장사치 등 외간 남자와의 은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사설시조의 의외성과 과격성은 은폐되었던 성이 여성에 의해 노출된 데에서 최고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³³⁾ 즉 중세 시대의 성에 관한 금기를 여성들이 과감하게 위반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여성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과격적이고도 공격적인 성 묘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남성이

32) 김홍규, 「사설시조의 애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2002년 전국 학술대회 ‘한국시가연구의 쟁점과 전망’, 2002.10.26, 80~82쪽.

33) 박예경, 「사설시조의 여성화자와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문화연구3』, 한국여성문학회, 2000.6.10, 94쪽.

아닌 여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금기에 대한 위반의 양상이 사설시조와 1990년대 여성시인들의 시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1. 비윤리적인 성관계의 고백을 통한 금기의 위반

사설시조의 여성 화자는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윤리의식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살필 때 짙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화자의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사실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뚜렷한 작가군이 부각되지 않는 사설시조는 대부분 정황에 의존하여 화자의 성별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³⁴⁾ 현재로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사설시조의 여성화자 작품들을 보는 수밖에 없다.

애욕을 노래하고 있는 여성화자의 사설시조 가운데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백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다. 성적 본능의 발현과 충족에 있어서 일부일처제는 매우 불완전한 제도라는 점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 개체적 욕망의 크기에 비해 제도적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조는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삼고 일부일처제를 유지하였지만 성적 불평등과 남성 지배구조하에서 여성의 성은 항상 억압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성은 자유로웠다.³⁵⁾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 자신의 비윤리적 성관계를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태연스레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34) 박애경, 앞의 책, 95~98쪽.

35) 이형대, 『사설시조와 성적 욕망의 지층들』, 『민족문화사연구』 17, 민족문화사연구소, 2002.12.30, 185쪽.

본남편 그 놈 붉은 말총 병거지 쓴 놈
 셋서방 그 놈은 샷갓병거지 쓴 놈 그 놈
 본남편 그 놈 말총 병거지 쓴 놈은
 다 빈 눈에 허수아비로되
 밤중만 샷갓 병거지 쓴 놈 보면 셋별 본 듯하여라.-『육당본 청구영언』³⁶⁾

본남편 광주 싸리비 장사
 셋서방은 삭녕(朔寧)³⁷⁾이라 잇비³⁸⁾ 장사
 눈짓에 맺은 입은 뚜딱 두드러 방망이 장사
 도르르 감아 흥두깨 장사 빙빙 돌아 물레 장사
 우물전에 치달아 간당간당 하다가
 워렁충창 풍 빠져 물 담뱃 떠내는 드레박 꼭지 장사
 어디 가 이 얼굴 가지고 조리 장사를 못 얻으리.-『진본 청구영언』³⁹⁾

간통은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극형으로 다스려지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행위가 사설시조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셋서방에 대하여 태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놀라운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셋서방을 둔 여인의 고백은 희극적이기까지 하다. 불륜의 현상이 희극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은 사설시조에 보이는 특징적인 면이다. 이러한 면은 다음의 작품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이러뇨 어이러뇨 시어머님아 어이러뇨

36) 김홍규 역주, 『사설시조』,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145쪽.

37) 경기도에 있는 지명(김홍규 역주, 앞의 책, 146쪽.)

38) 잇있으로 만든 빗자루(김홍규 역주, 앞의 책, 146쪽.)

39) 김홍규 역주, 앞의 책, 147쪽.

셋서방의 밥을 담다가 늦주걱을 덜컥 부러뜨렸으니
 이를 어이하려뇨 시어머님아
 저 아기 하 걱정 마스라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꺾어 보았노라.-『진본 청구영언』⁴⁰⁾

위의 작품은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두 여인의 대화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극적이다. 젊은 며느리가 셋서방의 밥을 얼마나 힘주어 꼭꼭 눌러 담았는지, 그만 밥주걱을 그것도 늦쇠로 된 밥주걱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에다가 밥주걱을 부러뜨리는 잘못까지 저지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천연덕스럽게 고백을 한다. 그에 대하여 화를 내기는커녕 한 술 더 떠서 젊었을 적 자신의 불륜까지 맞받아 고백하는 시어머니의 대화에 이르면 어처구니없어 웃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천연덕스레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륜의 현장을 들켰으나 태연하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작품도 있다.

이르랴 보자 이르랴 보자 내 아니 이르랴 네 남편더러 거짓 것으로 물
 낚는 체하고
 통을랑은 내려서 우물전에 놓고
 또아리 벗어 통조지⁴¹⁾에 걸고
 건너 집 작은 김서방을 눈짓해 불러 내어
 두 손목 마주 덤석 쥐고 수군수군 말하다가
 삼 밭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 하던지
 잔 삼은 쓰러지고 굶은 삼대 끝만 남아

40) 김홍규 역주, 앞의 책, 161쪽.

41) 통의 손잡이(김홍규 역주, 앞의 책, 165쪽.)

우즐우즐 하더라 하고
 내 아니 이르라 네 남편더러
 저 아이 입이 보드라와 거짓말 말아스라
 우리는 마을 지어미라 실삼 조금 캐더니라.-『진본 청구영언』⁴²⁾

이 작품은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과 태연하게 변명하는 여인 사이의 말다툼으로 이루어져 있다. ‘잔 삼은 쓰러지고 굶은 삼대 끝만 남아 우즐우즐 하더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음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에 대하여 태연히 변명을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폭로에 대한 긴장된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기존의 논의에서 이 작품은 성적인 난잡성이 표면화된 것으로 폄하되었다. 불륜을 목격한 여인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과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 두 여인이 색욕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⁴³⁾ 이 부분에 대하여 김홍규는 두 여인의 다툼을 연출하는 일차적 관심이 시비의 관점이나 윤리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태의 한 단면과, 그 속에서 제각각의 기질과 행동방식을 드러내는 인물 형상들에 있다고 보았다. 즉 ‘부정을 저지른다’는 개념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심리 및 행동들이 절묘한 수법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태연한 둘러담과 대조를 이루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인정 세태에 대한 희극적 관찰의 한 삽화가 된다고 보았다.⁴⁴⁾ 그러나 이 작품의 내부에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솔직한 드러냄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금기에 대한

42) 김홍규 역주, 앞의 책, 165쪽.

43) 박노준, 『사설시조와 에로티시즘』, 『조선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대민족문화연구, 1998, 362쪽.

44) 김홍규, 『사설시조의 시적 시선 유형과 그 변모』, 『욕망과 형식의 시학』, 집문당, 1999, 226~227쪽.

과감한 위반의 행위를 하게 한 힘의 근원이 있다. 그 힘은 지배계급의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의 일부이다.

사설시조에는 간통을 고백하고 폭로하는 작품들이 많다.⁴⁵⁾ 간통이라는 금기에의 위반이 사설시조에 빈번히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나 남성이 아닌 여성이 저지르고 있는 간통의 사실을 태연히 고백하고 있는 여성화자의 사설시조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것은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하고 일부일처제를 표방하였으나 여성의 성은 억압적이었던 남성 주도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3.2. 외설적인 성표현과 성적 일탈을 통한 금기의 위반

애욕을 노래하고 있는 여성화자의 사설시조 가운데에는 성관계의 모습이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상당수가 중의 파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중놈도 사람인 양하여 자고 가니 그림다고
 중의 송락⁴⁶⁾ 나 베고 내 족도리 중놈 베고
 중의 장삼은 나 덮고 내 치마란 중놈 덮고
 자다가 깨달으니 둘의 사랑이
 송락으로 하나 족도리로 하나
 이튿날 하던 일 생각하니 홍글항글⁴⁷⁾ 하여라.-『진본 청구영언』⁴⁸⁾

45) 조규익은 『만황청류』(박이정, 1996)에서 사설시조에 나타난 간통의 모티프를 ‘姦婦歌’라는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46) 송낙(松絡) : 소나무 겨울살이로 만든 중의 모자(김홍규 역주, 앞의 책, 171쪽.)

47)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들떠 있는 모양(김홍규 역주, 앞의 책, 171쪽.)

48) 김홍규 역주, 앞의 책, 171쪽.

청울치⁴⁹⁾ 육날 미투리⁵⁰⁾ 신고 휘대 장삼 두르켜 메고
 소상 반죽 열 두 마디를 뿌리째 빼서 짚고
 마루 넘어 재 넘어 들 건너 별 건너 청산 들길로
 희끗 누엿누엿 희끗희끗 넘어 가읍거늘
 보온가 못 보온가 그 우리 남편 선사 중이
 남이야 중이라 하여도 밤중만 하여서 옥 같은 가슴 위에
 수박 같은 머리를 동글꺄꺄 꺄꺄동글 동글동실
 동글러 기어 올라올 적에는 내사 좋아 중 서방이.-『진본 청구영언』⁵¹⁾

사설시조에서 중과의 성관계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당시의 세태 풍속과 연관이 있다. 성종조에 정치·사회적 제도화 노력에 수반된 각종 정비작업이 있었는데, 예조에서 당시 왕에게 올린 문서를 보면 쉽게 당시 성 풍속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⁵²⁾ 예조에서 성종에게 올린 7개

49) 칩덩굴의 속껍질로 만든 끈(김홍규 역주, 앞의 책, 172쪽.)

50) 날줄을 여섯으로 삼은 미투리(김홍규 역주, 앞의 책, 172쪽.)

51) 김홍규 역주, 앞의 책, 173쪽.

52) 1. 몸을 파는 녀자나 음탕한 계집들이 음란한 짓을 하여 리속을 채우려고 피하며 중과 평민녀자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괴이쩍게 여기지 않는 관계로 남자와 녀자 사이의 명분을 어지럽혀 료리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중략)…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간통죄에 관한 조문에다가 한등급을 더 적용하며 량인집녀자나 중은 피폐한 고을의 노비로 영영 소속시켜 버릴 것입니다.

1. 중의 무리들이 녀인들을 유인하여 산중의 절간에 숨겨두거나 혹은 머리를 깎아 녀자중으로 만들고 ‘함께 도를 닦는 신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몰래 간음하는 경우 라든지…(중략)…범행이 중한가 경한가에 따라 철저하게 징계하며 재물은 관청에서 몰수할 것입니다.

1. 녀자중과 남자중의 옷차림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갔다 왔다 하면서 10여일이나 달포씩 머물러 있으면서 제멋대로 음탕한 짓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불교의 계율에 루를 끼칠 뿐 아니라 실상은 풍습과 교화에 관계하는 것입니다.…(중략)…상기의 조항들의 규제에 따라 죄를 주고 모두 피폐한 고을의 노비로 소속시킬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권 8, 670~671쪽,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6, 47~48쪽. 재인용.

의 문항에 걸친 세칙 가운데 3개의 문항에서 중과의 성관계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중의 파계와 관련된 풍속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조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지배이념 하에 억불숭유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에 와서 중의 파계와 맞물려서 성의 자유분방함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지배체제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는 성적 통제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성화자의 사설시조들에서 나타나는 빈번한 성적 일탈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의 파계와 맞물려서 빚어지는 성적 일탈은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노비로 전락하는 중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 속에 그러한 긴장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거침없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설시조가 갖는 희극성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비로 전락하거나 사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 자악함을 보이고, 당당히 고백까지 하는 여인들의 상황을 희극적으로 연출해 놓음으로써, 범법을 저지른 데 대한 긴장을 무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 희극이 주는 효과는 실제로 저질렀을지도 모를 금기에 대한 위반 행위를 작가의 익명성에 기대고 있다는 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설시조의 익명성이 지닌 의미를 단순히 ‘금기’를 위반하는 상황 속에서의 긍정적 역할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설시조를 비롯한 고전시가의 향유 방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서, ‘구전’이라는 전승 방식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 부분은 사설시조가 단지 조선시대 후기에 새로이 제작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 전래되는 민요와의 상관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므로 쉽게 판단내릴 문제

는 아니다.

또한 사설시조의 향유 계층에 대한 문제 역시 논의의 여지를 많이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 사설시조가 주로 절당한 유흥의 장에서 연행되었다는 사실과 연결해보았을 때, 성에 편향된 여성 화자의 형상이 어떤 기능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탈의 과잉 포즈는 유흥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자극으로 어울렸던 것이다. 사설시조의 실질적 화자를 유흥의 장에서 가무를 담당했던 기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설시조의 여성화자가 사실은 남성의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대리진술하고 대리체험하는 욕망의 투사체였다고 보는⁵³⁾ 부정적인 입장에서부터 결코 벗어나기 힘들다.

여기에 하나의 문제를 더 덧붙인다면, 사설시조의 작가에 있어서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이 부른 시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설시조의 작자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 작자들이 여성 화자의 입을 빌어 금기시된 욕망을 토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찌되었든 사설시조가 작가의 익명성에 기대어 당대 사회의 금기에 대한 위반을 과감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당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상반되는, 성적 금기에 대한 '위반'의 모습을 과감하고 거침없이 보여준 사설시조의 특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시조가 갖는 성적 '금기'에 대한 '위반'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민중적인 저항의 동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3) 박애경, 앞의 글, 110쪽.

4. 결론

1990년대 성담론과 연관된 여성 시인들의 시는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항하는 측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의 금기에 대한 위반을 과감히 토로함으로써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성담론과 연관되어 논의된 여성 시인들의 시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시대 여성화자의 사설시조는 당대 사회의 금기에 대한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최영미, 신현림의 시가 남성지배중심의 성문화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다면 사설시조의 여성화자들은 중세의 엄격한 유교적 윤리 안에서 ‘간통’이라는 죽음과 맞물린 일탈을 통하여 지배 권력에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이 있다면 90년대 여성시에 있어서 과감한 성적 담론들이 도발적,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반면, 사설시조에 있어서 여성화자들은 회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한 고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설시조의 회극성은 범법행위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을 약화 혹은 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사설시조의 작가 문제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두 가지 난점이 있다. 하나는 남성 작가들이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과감한 성적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 볼 경우인데, 그렇다면 사설시조의 회극성을 논의하는 일은 좀더 복잡해진다. 남성들이 자신들의 성적 일탈행위를 한낱 우스개로 만듦으로서 사설시조의 성담론이 갖는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설시조의 실질적 화자 가운데 하나를 유흥의 장에서 가무를 담당했던 기녀로 보았을 경우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설시조의 여성화자가 사실은 남성의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대리진술하고 대리체험하는 욕망의 투사

체였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일부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자의 사설시조가 당대 사회의 성적 금기를 과감히 위반함으로써 획득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국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금기를 위반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의 추구에 있어서, 그 바탕에 잠재한 힘의 원천이야말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화자의 사설시조에서 보여주는 성적 금기에 대한 과감한 위반의 모습에서 기존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욕망의 근원적인 에너지의 표출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여성시의 국면에서 또 다른 특징적인 면은 '절망'을 형상화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대상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연주와 김언희의 시는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절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이연주의 경우에는 절망에 함몰해서 죽음만이 해결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김언희의 경우 절망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도발적인 공격성을 취함으로써, 재기발달함과 삶에의 긍정을 획득해내었다.

1990년대의 여성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은 사설시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화자의 사설시조에서도 제도의 모순과 맞물려 여성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토로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으나, 처첩간의 갈등을 나타낸 사설시조들이 그 한 예이다. 남편을 시앗에게 빼앗긴 고통을 노래한 작품도 있고 처첩간의 대화를 회화적인 구도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작자가 여성인 1990년대 여성시의 경우는 남성 주도의 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적일 수 있음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의 성과 삶에 대한 내면 심경의 토로가 가능하다. 사설

시조의 경우에는 남성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성 생활에 비해 모순된 제도로 인해 제한되어 있었던 여성의 성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유교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했다는 점에 있어서 당대 사회의 금기를 과감히 위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특징을 갖는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성담론과 연계선상에서 고찰한 시인들의 시와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작가의 익명성이다. 90년대 현대시가 갖는 실명의 의미는 특기할 사항이 없으나, 사설시조의 익명성은 ‘금기’를 주제화하는 점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즉 당시의 실정법 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성담론들을 익명을 사용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설시조의 익명성이 지닌 의미를 단순히 ‘금기’를 위반하는 상황 속에서의 긍정적 역할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사설시조를 비롯한 고전시가의 향유 방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서, ‘구전’이라는 전승 방식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 부분은 사설시조가 단지 조선시대 후기에 새로이 제작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 전래되는 민요와의 상관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므로 쉽게 판단내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설시조의 한 특징인 ‘익명성’의 문제가 당대 사회의 금기를 위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또한 사설시조가 갖는 이러한 익명성은 사설시조의 희극적 성격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익명에 기댈으로써 성적 금기에 대한 위반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범법의 행위가 주는 현실적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유는 익명이라는 조건이 죽음과 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범법 행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희극적인 상황의 연출이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설시조의

회극성은 시적 긴장의 약화라는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이에 반하여 1990년대 여성시인들의 시에 있어서, 여성이 자신의 성욕과 성에 관한 과감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은 데서 빚어지는 과도한 시적 긴장은 매춘부 운운의 지독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 주도의 성 문화 속에서 여성이 실명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의 코드를 거침없이 풀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금기를 위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모순에 찬 남성 주도의 성 문화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당당히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건 강한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성적 욕망이 지닌 근원적인 에너지의 분출이 환기하는 강렬한 생명력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금기에 대한 위반은 힘을 내재하고 있다. 그 힘은 강한 부정 속에 긍정의 힘을 내포한 그런 힘이다. 그 힘은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 속에서 변혁을 가능케 한 근원적인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홍규 역주, 『사설시조』,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②,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3.
- 신현림,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계사, 1994.
- 신현림, 『세기말 블루스』, 창비, 1996.
-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비, 1994.
- 이연주,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 세계사, 1991.
- 이연주, 『속죄양, 유다』, 세계사, 1992.
- 김언희, 『트렁크』, 세계사, 1995.
- 김언희,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 민음사, 2000.

2. 단행본

- 김상태, 『1990년대 한국사회 섹스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 새물결, 1996.
-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6.
- 전미정,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 R. 베이커, F. 엘리스턴, 이일환 역, 『철학과 성』, 홍성사, 1982.

3. 논문

- 고갑희, 『1990년대 성담론에 나타난 성과 권력의 문제』, 『세계의 문학』, 1997, 봄호.
-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6.8.31.
- 고미숙, 『18, 19세기 시가사에 있어서 리얼리즘적 발전의 한 경로-사설시조를 중심으로』, 소명, 1996.8.31.
- 김문기, 『조선 후기 여성풍속 시가에 나타난 삶의 형상과 작가의식』,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002.2.18.
- 김용찬, 『시조에 구현된 여성적 목소리의 표출 양상』,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6.29.

- 김홍규, 「사설시조의 시적 시선 유형과 그 변모」,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 김홍규, 「사설시조의 애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2002년 전국 학술대회 ‘한국시가연구의 쟁점과 전망’, 2002.10.26.
- 박애경, 「사설시조의 여성화자와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 한국여성문학회, 2000.6.10.
- 송명희, 「우리 시대의 성담론」,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 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 신경숙, 「초기 사설시조의 성인식과 시정적 삶의 수용」, 『한국문학논총』 제16집, 한국문학회, 1995.12.5.
- 안토니 기든스, 「푸코와 섹슈얼리티」, 황정미 역, 『미셸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1995.
- 이형대, 「사설시조와 성적 욕망의 지층들」, 『민족문학사연구』 17,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12.30.
- 정순진, 「외설과 에로티시즘의 경계」,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 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Abstract

The Sexuality For Taboo and Violence in Korean Female Poet's Poetry In 1990's

- In relation to Saseol Shijo in the later term of Chosun periods

Baik, Eun-ju

The discourses about sexuality has been in company with human history for a long time. Each discourse is to be or not to be taboo in human living. And then they are sometimes forbidden or sometimes partly revealed. But the discourses has been made and spread out constantly as for provocative talking give rise to interest. Especially, in this paper, I focus the time of 1990's because there are so many discourses about sex in this time.

The sexual discourses of female poet's poetry in 1990's are characterized by violence in sexual taboos. Their violence is extremely pornographic and very aggressive. This pornographic side is found in Saseol Shijo in the later term of Chosun period, too.

The prominent difference between 1990's Korean female poet's poetry and Saseol Shijo in the later term of Chosun period is anonymity of poet. The meaning of the poet's real name in modern poem is not important but Saseol Shijo's poet's real name is fatal. If the poet's real name is known to everybody he will catch and die. At that time, Chosun government prohibit all of the sexual reference severely.

Saseol Shijo got so many sexual discourses that could never been possible by real name. In this way of indecent expression, Saseol

Shijo present resistance about authority of the governing class. And the female poet's poetry in 1990's also have same side. Their violences of sexual taboo present their thought about ideology of male dominant class. They resist the authority of the governing male-class, too.

But the female poet's poetry in 1990's have personal aspect. They expressed their sorrow and desperation in their works. Even one of the female poet killed herself. On the other hand, many Saseol Shijo deal with adultery and this is very dangerous because they may die. But the way of expression is very comic. Their adultery are not serious and desperate but cheerful and funny. This comic side of Saseol Shijo play an important part of eliminating the tension of fatal relationship. But the theory that the real writers of Saseol Shijo may be male is dominant.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comic side of Saseol Shijo is difficult to set. And We have to make so many studies the problems of real writers.

Key words : Sexuality, Female Poet's Poetry, Sexual Discourse, Saseol Shijo, Violence

■ 본 논문은 10월 15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